

근대 이행기 호남 유림의 時務論과 東學 인식*

- 李沂(1848~1909)와 黃玹(1855~1910)을 중심으로 -

원재연**

〈目次〉

- I. 머리말
- II. 交遊와 討論
- III. 時務論
- IV. 東學認識
- V.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이기와 황현을 중심으로 근대이행기 호남유림의 時務 인식과 동학 인식의 특징에 관하여 살펴본 글이다. 이기와 황현은 출생지가 서로 달랐으나 ‘구례’라는 지역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교류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유형원이나 정약용의 중농주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였고 온건한 개화정책을 지지했다. 황현은 개항 직후부터 서울 일대에서 활약하던 개화파 인사들인 강위, 신헌 등과 교류하였고, 이기도 1890년대 이후 황현과 교류하면서 황현의 서울 친구들을 포함하여 조정의 관리들, 언론인 등과의 교류관계를 차츰 넓혀갈 수 있었다. 이기와 황현은 실제로 개화정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기는 대한제국의 양전사업에 참여하고 보안회와 함께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좌절시키는 데에 앞장섰으며, 을사늑약 이후에는 대한자강회, 호남학회 등의 교육, 언론 활동과 매국노를 징벌하는 의열투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는데 노력했다. 이에 비해 황현은 민족혼

* 이 논문은 2014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4S1A5 B8063617)임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중점연구소 연구교수

을 일깨우는 정의의 필설로 부패한 정치를 비판하고 의병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역사서술에 집중하였으나, 이기처럼 현장에 나가 직접 활동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황현도 1902년과 1907년 이기의 거듭된 충고와 1905년 김택영의 중국 망명 활동 등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 국권회복을 위한 참여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마침내 1908년 호남학회가 내세우는 구례지역의 사립학교인 호양학교를 설립하여 신교육운동에 동참했다. 한편 이기와 황현은 동학 인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이기는 처음에 동학농민군에 동참하여 부패한 정치를 일신하고자 할 정도로 동학농민운동의 輔國安民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였으나, 전봉준과 김개남 두 지도자의 서로 다른 반응과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난 뒤, 오히려 동학군을 진압하는 구례지역 의병의 맹주가 되었고, 황현은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처음부터 동학을 도적이라고 본 인식으로 일관하였다. 그리하여 1894년 연말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될 즈음에 양자 간의 차이는 없어졌는데, 사대부 중심의 당대 신분질서를 옹호한 공통점 때문이었다.

핵심어: 이기(李沂), 황현(黃玹), 중농주의(重農主義), 개화정책(開化政策),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호남 유림(湖南儒林)

I. 머리말

근대이행기 호남 유학자 李沂와 黃玹은 李定稷과 더불어 당대 호남의 三傑로 불리었다.¹⁾ 이들은 서로 교유하면서 시와 문장을 주고받았으며, 가끔 時務를 토론하기도 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이기와 황현은 그 태생이 각각 萬頃(현 김제시 성덕면), 光陽이었으나 18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文友로 발전하였다. 특히 이기가 황현이 먼저 자리잡고 있던 求禮로 이주하면서 두 사람은 자주 시와 문장을 함께 모여 짓고 서로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평가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결같이 時事에 늘 관심을 갖고 그 해결책을 고

1) 李沂(1848~1909)의 자는 伯曾, 호는 海鶴·質齋·梓谷, 본관은 固城이다. 黃玹(1855~1910)의 자는 雲卿, 호는 梅泉, 본관은 長水이다. 李定稷(1841~1910)의 호는 石亭, 자는 馨五이다. 그는 시문학을 비롯하여 서예, 그림, 역술, 의술, 서양철학 등에도 일가견이 있었고, 실학에 조예가 있어 『詩經註解』, 『시학중해』, 『소어목』, 『刊誤精選』, 『蘇詩註選』, 『石亭集』, 『燕石山房未定文集』 등의 저서가 있다고 하나 현존하는 것은 『석정집』 3권뿐이다. 김영봉, 『黃玹 詩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참고. 이하에서 이기 및 황현의 교유관계와 관련된 서술은 이 논문을 참고로 하였으며, 별도의 전거를 생략한다. ‘호남3걸’이란 용어는 매천의 시에 나옴. 김영봉 譯, 『(여주) 황매천 시집』 後集, 보고사, 2010, 325~326쪽.

민하면서 향촌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이정직은 이기가 시에 타고난 소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六經古文의 연구와 經世致用の 학문에 집중하여 시무를 논하고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²⁾ 이기와 마찬가지로 황현도 시무에 힘썼는데 이에 대해 金澤榮(1850~1927, 滄江)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학문은 博通하기에 주력하였으나, 당시의 流俗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講學에 있어서는 歷代의 史籍에 실린 治亂盛衰의 자취를 살펴보는 것을 즐겨 하여, 군사, 형벌, 錢穀 등의 제도에까지 미쳤으며, 또한 일찍이 서양[泰西]의 利用厚生하는 방법에도 마음을 기울여, 시대를 구제할 고심을 하곤 했다. 저술로 문장도 있지만 시에 있어서 더욱 깊이가 있었다.³⁾

이처럼 이기와 황현은 모두 당대 호남의 이름난 시인이요 문장가였으나, 그들은 문예나 기교보다는 어려운 세상을 구할 실용적 학문에 힘을 쓴 학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구한말까지 호남 일대에 그 영향이 남아있던 柳馨遠(1622~1673, 磻溪), 丁若鏞(1762~1836, 茶山, 與猶堂) 등 조선 후기 중농주의 실학자의 경제적 학풍을 사숙하였기 때문에⁴⁾ 시나 풍류를 즐기며 자신과 가문의 안일만을 구하던 다수의 속유들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또한 이들은 시무와 무관한 전통적인 道學[性理學]에 거부감을 갖고 스스로 멀리 하였기에, 당대 호남의 주요 학파인 良齋 田愚, 淵齋 宋秉璿, 蘆沙 奇正鎭 등 어느 학파⁵⁾와도 직접적 관련은 없었다.⁶⁾ 한편 이기

2) 『海鶴遺書』, 『海鶴詩文集序』,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1, 3~4쪽.

3) 『梅泉集』 卷首, 本傳[花開金澤榮].

4) 이기의 실학계승은 『海鶴遺書』, 『海鶴遺書序』,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1, 1~2쪽 참고.

5) 근대 이행기 호남지방 유학의 주요 학파 및 그 주요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들이 참고된다. 금장태, 『韓國近代의 儒敎思想』,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32~40쪽; 권오영, 『근대 이행기의 유림』, 돌베개, 2012, 430~473쪽; 황준연, 「한말 호남유학계의 성리사상과 현실대응」, 『한국유학사상사대계Ⅲ(철학사상편 하)』, 한국국학진흥원, 2005, 631~683쪽.

6) 이기의 경우는 직접 학문을 배운 스승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황현의 경우는 구례에 거주하던 王錫輔(1816~1868, 川社)에게서 1865년부터 2~3년간 배웠다. 또 황현은 1879년 장성에 있

와 황현은 서세동점의 시대사조를 외면하지 않아, 앞선 서양 문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국부민강할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유학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대 지배계층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 질정하면서, 東學, 天主教 등 이른바 민중에 널리 퍼진 신흥 종교들이 사대부중심의 유교적 윤리질서에 도전해올 때마다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므로써 衛正斥邪의 筆舌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들은 오랜 친구로서 서로에게 덕업상권하고 과실상규하는 허물없는 사이였기에 두 사람의 時局觀과 이에 입각한 해결책의 강구에는 가문의 배경, 빈부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잦은 토론과 교류로 점차 공통점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국가가 이민족의 통치 하에 들어설 무렵, 차례로 둘 다 순절의 방법으로 생을 마감함⁷⁾으로써 당대 지식인 사회에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본고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업적들은 이기, 황현과 관련된 인물연구 및 유림들의 동학인식과 관련된 주제연구들로 대별된다. 우선 이기와 관련된 인물연구는 1960년대부터 김상기, 김용섭 등이 각각 사상사, 농업사의 측면에서 시작한 이래,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도형, 나종우 등이 정치사상사적 측면에서, 한국교육학회와 전영배 등이 교육사상에 대해, 박종혁은 문학과 종교적 측면에서 각각 이기의 사상을 분석했다.⁸⁾ 한

딘 奇正鎭(1798~1879, 蘆沙)을 직접 방문하여 '지극한 보배[至寶]'라는 칭찬을 받았으며, 노사가 詩 3수를 지어주자 이에 차운하여 지은 시 3수가 남아있다. 김영봉, 『(역주) 황재헌 시집』(속집), 보고서, 2014, 278~281쪽. 또 노사의 부음을 나중에 듣고서는 1881년 『奇蘆沙先生挽』이라는 弔輓詩를 짓기도 했다. 그러나 황현은 노사의 제자라고 자처한 적은 없다. 황현이 노사를 높이 평가한 것은 당대 충의와 절개를 지닌 유림을 존경했기 때문인데, 1905년 을사늑약에 항의하여 의병을 일으켰던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순절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를 추도하는 시 「哭勉菴先生」(1906년)을 지어 최익현의 충절을 기렸던 점에서 알 수 있다.

7) 이기가 1909년 7월 서울 여점에서 약 10일간의 단식으로 사망했을 때 황현은 「哭海鶴」(칠언율시 5수)를 지었고, 황현이 1910년 8월 합일합방의 비보를 듣고 음독자결한 때에는 절친 金澤榮 등 여러 사람이 애도하는 글을 지었다.

8) 金庠基, 「李海鶴의 生涯와 思想에 대하여」, 『아세아학보』 1, 1965; 金容燮, 「光武年間の 量田事業에 關한 一研究」, 『亞細亞研究』 11-3, 1968; 「광무연간의 量田·地契事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下, 일조각, 1968; 李英俠, 「海鶴 李沂考」, 『학술지』 14, 1972; 田英培, 「海鶴 李沂의 教育思想」, 『國際大學 論文集』 6, 1978; 金度亨, 「海鶴 李沂의 政治思想研究」, 『東方學誌』 31, 1982; 羅鍾宇, 「海鶴 李沂의 救國運動과 그 思想」, 『원광사학』 2, 1982; 鄭景鉉, 「韓末 儒生の

편 황현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문학계에서 먼저 문학사상을 검토하면서 생애와 현실인식, 민족정신 등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뒤이어 사학계에서도 그의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현실비판 및 시무인식, 종교관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척시켜 왔다.⁹⁾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본고의 주제인 이기나 황현의 시무론이나 동학인식과 직접 관련된 글들은 나종우, 정경현, 박종혁, 길은식, 김항구, 박맹수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박종혁의 이기(사상전반) 연구와 박맹수의 황현(동학관) 연구는 매우 독보적이라고 할 만하여 본고의 논리 전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¹⁰⁾ 그러나 이들도 이기와 황현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각각 연구했을 뿐, 본고처럼 양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영봉은 2003년 이후 황현의 시에 관한 끊임없는 발굴로 무려 2,000여 수에 이르는 황현 시를 분석하고 번역하는 가운데, 황현과 이기의 친교관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잘 정리하여 주었다. 그러나 본고처럼 주요한 현실인식의 비교

知的 變身: 海鶴 李沂(1848~1909)의 경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陸士論文集』 23, 1982에 재수록); 金容燮, 『海鶴 李沂의 土地論과 量田論』, 『증보판 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下, 일조각, 1984;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편, 『李沂』, 『教育思想家評傳: 韓國篇』, 교육연구사, 1987; 朴鍾赫, 『海鶴 李沂의 思想的 轉移의 過程(海學研究 其一)』, 『韓國漢文學研究』 12, 1989; 『海鶴 李沂의 天主教 批判 -프랑스 신부 로베르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下,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職紀念論叢, 창작과 비평사, 1990; 『韓末 激變期 海鶴 李沂의 思想과 文學』, 아세아문화사, 1995; 정승교, 『이기(李沂)의 사상에서 '공(公)'의 의미』, 『역사와 현실』 29, 1998.

9) 본고의 시무관이나 동학인식과 관련된 것만을 선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하우봉, 『黃玑의 歷史意識에 대한 研究』, 『全北史學』 6, 1982; 琴章泰·高光植, 『梅泉 黃玑』, 『續 儒學近百年』, 여강출판사, 1989; 길은식, 『梅泉 黃玑의 開化認識 研究』, 『靑藍史學』 3, 2000; 김영봉, 『黃玑 詩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항구, 『梅泉 黃玑의 對外認識과 그 變化』, 『사회과학연구』 4, 2003; 『黃玑의 新學問 受容과 壺陽學校 設立』, 『문화사학』 21, 2004; 홍영기, 『황현의 생애와 사상』, 『光陽市誌』 1, 2005; 『황현』, 『한국사시민강좌』 41, 일조각, 2007; 이장희, 『梅泉 年譜』, 『매천야록(梅泉野錄)』 上, 명문당, 2008; 『黃玑의 生涯와 思想』, 『매천야록(梅泉野錄)』 下, 명문당, 2008; 홍영기, 『黃玑의 著作物 간행과 연구 현황』, 『남도문화연구』 19, 2010; 하우봉, 『근대 여명기의 계몽적 역사가 매천 황현』, 『매천 황현과 역사서술』, 디자인흐름, 2011; 한철호, 『『매천야록』에 나타난 황현의 역사인식』, 『매천 황현과 역사서술』, 디자인흐름, 2011; 김영봉, 『黃梅泉 詩文學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0) 朴鍾赫, 『韓末 激變期 海鶴 李沂의 思想과 文學』, 아세아문화사, 1995; 박맹수,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매천 황현과 역사서술』, 디자인흐름, 2011; 『전라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를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이기와 관련된 원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진척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황현의 경우 본고는 거의 전적으로 김영봉의 연구성과에 의지했다.¹¹⁾

본고는 한국사의 격변기에 해당되는 조선말기 내지 대한제국기에 호남지방에서 성장하여 동시에 활동한 이기와 황현 두 유학자의 사상적 경향과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한 행적들을 상호 연관지어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개화정책에 참여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하고, 아울러 1894년 조선왕조에 획기적인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 등을 사상사적 측면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근대 이행기 호남지역 유교 지식인 중 비교적 진보적 부류에 속하는 이들의 시대적 고민과 그 해결 방안의 궤적을 추적해보았다.

II. 交遊와 討論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던 이기는 무척 가난하였다.¹²⁾ 固城 李氏 26세손인 그는 擇振의 장남으로 전라도 萬頃縣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호방하고 총명하였으나 가세가 곤궁하여 7세부터 9세까지 私塾(서당)에 입학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독학으로 四書三經과 諸子百家를 통달했다.¹³⁾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29세 때(1876년) 鎭安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단신으로 상경하여 구직활동을 했으며, 김제, 대구 등지를 떠돌다가 10여년 만인 1893년경¹⁴⁾

11) 김영봉, 『黃玑 詩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영봉, 『黃梅泉 詩文學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2) 정인보는 이기가 “호남의 寒士로서 한 치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기술했다. 정인보, 『海鶴遺書』, 『海鶴遺書序』, “公湖南寒士 尺寸無所藉”

13) 이후 이기의 생애에 대해서는 박중혁, 『韓末 激變期 海鶴 李沂의 思想과 文學』, 아세아문화사, 1995의 연구성과를 참고했다.

14) 박중혁, 위의 책, 1995. 이에 비해 김영봉은 이기가 생계를 위해 그의 처가가 있는 구례로 1892년경 이주했다고 서술했다. 김영봉, 앞의 논문, 2003, 28쪽.

친구 황현의 권유로 구례로 이사하여 이후 그의 가족만은 쪽 그곳에 머물렀다.

이기는 1907년 을사5적에 대한 응징이 실패한 직후 체포되어 진도로 7년 유배형을 떠날 때 자신을 뒷바라지 해준 아내를 생각하며 지은 시에서 그의 부인을 평생토록 고생시킨 가난에 대해서 토로했다.¹⁵⁾ 그의 가난한 형편은 친구 황현이 1909년 그의 부음을 듣고 쓴 祭文에, “유산이라고는 송곳 하나 없으니, 처자가 울고 있습니다.”라고 한 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¹⁶⁾

이에 비해 황현의 집안은 오랫동안 한미하다가 그의 조부 때부터 약간 부유해진 것으로 보인다.¹⁷⁾ 세종 때 명신 黃喜의 후손인 그의 집안은 황현에 이르도록 7대째 벼슬을 하지 못해서 평민이나 다름없는 殘班이었으나, 조부가 佃租賃殖하여 거금을 마련한 덕분에 가세를 만회하였고, 자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글공부에 필요한 수 천 권의 책을 사서, 집안 자제들의 교육만을 위한 선생을 따로 초빙하였다고 한다.¹⁸⁾

이처럼 이기와 황현은 그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달랐다. 그래서 이기는 15세 이후 鄉試를 보고 주변의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낙방하자 28세 때(1875년) 완전히 과거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에 비해 황현은 29세 때(1883년) 保舉科에 응시하여 초시에 장원을 하였으나 곧바로 한미한 시골사람이라고 하여 2등으로 떨어뜨리니 분하여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거듭된 부친의 독촉에 힘입어 34세 때(1888년) 다시 상경하여 생원시험에 장원으로 합격하였으나, 1889년 환로를 포기하고 낙향했다. 그러나 과거를 보기 위해 1870년대 후반부터 약 10여 년 동안 자주 서울로 올라가서 당대의 명망있는 선비들, 姜瑋(1820~1884, 秋琴), 申櫨(1810~1884, 威堂), 신헌의 아들 申正熙, 김택영, 李建昌(1852~1898, 寧齋) 등과 시를 나누며 교유했다. 이중에서도 김택영, 이견창 등 양인과는 서로 교감이 통하는 神交의 관계를

15) 『海鶴遺書』 권12, 文錄 10, 詩, 「寄謝老室」.

16) 『海鶴遺書』, 「祭李海鶴文」, “遺產無錐兮妻兒啼號”

17) 이하 황현의 집안 형편과 관련된 내용은 이장희, 「黃玪의 生涯와 思想」, 『매천야록(梅泉野錄)』(下), 명문당, 2008을 참고.

18) 『梅泉集』 권7, 王考府君墓表; 先考學生府君行狀.

맺었으며, 이밖에도 구례에서 ‘智異山詩社’의 柳濟陽(1846~1922, 雙峰, 二山)과도 친교를 맺고 교류했다.¹⁹⁾

황현은 1886년경 백운산 남쪽의 光陽을 떠나 백운산 북서쪽의 求禮 간전면 만수동으로 이거하여 1890년 그곳에 苟安室을 짓고 수 천 권의 책을 쌓아 두고 독서에 몰두했다.²⁰⁾ 여러 곳을 방황하던 이기는 1890년경 구례의 황현과 처음으로 만나 시를 나눈 후에 곧바로 의기가 투합되어, 황현의 권유로 46세 때(1893년) 구례읍[鳳城] 城北里로 이주하였다. 그 후 황현은 48세 때(1902년) 구례 광의면 月谷里로 다시 집을 옮겨, 두 사람의 집은 하천을 경계로 불과 몇 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였으므로 더욱 자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²¹⁾

이기는 때로 황현을 방문하여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1907년경에 그는 황현에게 新學問[西洋學問] 교육에 좀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현은 53세의 나이를 핑계로 거절했으나, 이기가 국권 상실이 염려되는 비상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거듭 설득하니,²²⁾ 이에 황현도 1908년 봄에 사립 壺陽學校를 설립하여 향촌 자제들의 신학문 교육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²³⁾ 이와 관련하여 황현도 “20년 동안 추종하면서 친구 이기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²⁴⁾고 했다. 이처럼 이기는 황현에게 주권 회복의 절박함을 역설하여 신학문 육성에 힘쓰도록 권면하였던 것이다.

19) 김영봉, 앞의 논문, 2003, 6~38쪽 참고.

20) 광양에서 출생한 황현의 친척들은 주로 남원에 많이 있었고, 황현이 구례로 간 것은 그의 나이 11세 때인 1865년 당시 구례의 학자 왕석보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구례 오씨와 결혼도 했다. 김영봉, 앞의 논문, 같은 곳.

21) 『海鶴遺書』 권12, 文錄 10, 詩, 「嘯時小晴出至西麓隔江望黃雲卿所居」.

22) 『海鶴遺書』 권3, 文錄 1, 論辯, 湖南學報論說 戊申, 「一斧劈破論」, “黃氏與愚相厚 昨年過宿其家語及于新學 則曰吾今年五十三矣 …”

23) 김은식, 『梅泉 黃玿의 開化認識 研究』, 『靑藍史學』 3, 2000; 김영봉, 앞의 논문, 2003, 11쪽에 의하면 황현이 호양학교를 설립할 때 그의 스승의 손자인 王粹煥(1865~1926)과 같이 설립했다고 한다. 왕수환은 나중에 황현의 사후에 매천집 간행에도 모금을 적극 추진하였다고 한다.

24) 『海鶴遺書』, 「祭李海鶴文」, “子憐其同 肩隨二紀 寃賴麻蓬.”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으로 따져보면 1890년부터 1909년까지 약 20년 쯤 된다.

Ⅲ. 時務論

황현은 부패한 관료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1890년부터 지리산 자락(구례)에 서실을 짓고 은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수탈당하는 백성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의 감면, 토지소유의 균분 등에 관심을 갖고 고급의 학문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다산 정약용의 실학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다산의 저술인 『牧民心書』, 『欽欽新書』, 『邦禮艸本』(經世遺表의 初名) 등이 후세에 본받을 만한 저술이며, 비록 문장은 明清의 유명인사인 馬端臨, 顧炎武 등에 미치지 못하지만 實用的 학문은 이들보다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했다.²⁵⁾ 초창기 황현이 선호했던 실용 학문은 어디까지나 유교(六經古學)에 바탕을 둔 유학의 일부로서의 實學이었는데, 이는 그가 서울을 드나들며 1870년대 후반부터 사귀었던 강위, 신헌 등 온건 개화파의 영향으로 보인다.²⁶⁾ 그러나 급진적인 甲申開化黨에 대해서는 권세가에 빌붙어 사는 파리나 개와 같은 존재라고 맹렬히 비난했다.²⁷⁾ 개화에 대한 황현의 태도는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더욱 굳어지게 된다. 황현의 동생 黃瑗은 “형 梅泉公[황현]이 갑오이후에 세상이 변했다고 한탄하면서 생각을 바꾸어 비로소 서양[泰西]의 서적들과 『文獻通考』, 『通典』등을 구입하여 열람하였다.”고 기술하였다.²⁸⁾ 그러나 매천은 어디까지나 서양의 과학기술만 선호하여 이를 수용하는 수준이었고, 결코 西教[천주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황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학문을 수용하여 공예를 창조하

25) 『梅泉野錄』 권1, 甲午以前,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1, 31쪽.

26) 김영봉, 앞의 논문, 2003, 67~68쪽 참고.

27) 『梧下記聞』 首筆: 황현 저, 김종익 옮김,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31~32쪽.

28) 『梅泉集』 頭卷, 『先兄梅泉公事行零錄』. 이에 대해 김영봉은 필자와의 대담에서 매천의 개화에 대한 인식은 1883년 박문국이 설치되면서부터라고 했다. 황원이 황현보다 15세나 어려서 그의 형 황현이 서울을 출입하면서 교유한 때(1870~80년대)의 일을 잘 알지 못했기에 이런 말을 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필자는 김영봉과 황원의 기록을 종합하여 최소한 갑오개혁 이후로 황현의 개화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굳혀진 것으로 보인다.

는 데 이르렀다고 보고, 방직기계, 도정기계, 전보기, 留聲機, 사진판 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신학문을 한 결실이라고 생각했다. 개항으로 인한 외국상품의 범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수신사 김홍집이 『易言』이라는 책자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를 공박하는 여론이 일어나자, 부강해지려면 반드시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김홍집을 두둔하였다.²⁹⁾ 황현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開化는 治道와 같은 의미로, 서양 사람들이 흥기한 것은 그 근본을 확립한 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愛民, 節用, 信賞必罰, 親賢遠姦 등 전통적인 유교적 덕목을 개화의 근본으로 삼았다.³⁰⁾ 그러면서 李鴻章과 左宗棠 등에 의해서 추진된 청나라의 洋務運動은 그 성과인 증기기관, 기차, 선박, 병기 등 말단적인 것만을 얻었을 뿐³¹⁾, 본질을 얻지 못해서 개화의 참된 결실을 얻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기는 그 스스로 “10세 때 古文을 배우고, 15세 때 縱橫說을 배웠으며, 18세엔 老莊學을 배우고, 25세엔 歷數와 度量衡을 배웠으며, 30세엔 性命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신의 수학여정을 자술하였는데,³²⁾ 그 이후엔 각지를 유랑하면서 서양의 학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기는 대략 1880년대부터 이미 서양의 학문에도 폭넓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1886년, 1891년 등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영남의 대도회인 大邱를 방문하여 그곳의 천주당 선교사 로베르 신부와 교리논쟁을 벌였던 사실³³⁾이 이러한 그의 학문적 성향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그 또한

29) 『梅泉野錄』 권1, 甲午以前,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1, 50쪽.

30) 『梅泉集』卷7, 疏, 「言事疏」, “天下之事 母論巨細 莫不有本有末 奚獨於開化而無之哉 夫開化云者 非別件也 不過開物化民之謂 則開物化民 可以無其本而致之乎 若親賢遠姦 愛民節用 信賞必罰之類 卽所謂本也 若鍊軍伍利器械 通商販之類 卽所謂末也 西人之法 雖與中國異 今考彼所謂萬國史 則其興也必由於立其本 苟無其本 雖強必斃 興亡之跡 種種可考 由是觀之 開化之名 雖屬創見 其實與中國之治無以異也”

31) 『梧下記聞』首筆; 황현 저, 김종익 옮김, 『번역 오하기문』, 1994, 56쪽.

32) 『해학유서』 권3, 「一斧劈破論」,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1, 79~80쪽.

33) 박중혁, 앞의 책, 1995를 참고. 이에 의하면 이기는 천주교의 無父無君한 不敬, 天堂地獄說의 황당함 등에 대해 비판했는데, 이는 그가 효도를 강조하고 현세위주의 윤리가치관인 유학사상

호남 부안의 실학자 유형원, 강진에서 18년간 머물렀던 정약용의 경세치용의 학문을 일찍부터 사모하여, 전제개혁을 위주로 하는 중농주의 실학연구를 이어갔다.³⁴⁾ 또 국가의 更張[갑오개혁]은 매우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토지개혁을 통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⁵⁾

이로써 살펴볼 때 이기와 황현은 1870년대 후반~1880년대 초반부터 서양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조정의 개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현실의 개화정책에 참여한 것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이기는 1899년 光武政權의 量田事業에 참여하여 충청도 牙山과 전라도 興德에서 약간의 성과를 내었고, 1906년에는 漢城師範學校 교관이 되어서 신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인재양성에 앞장섬은 물론 대한자강회, 호남학회 등의 학회를 통한 언론 계몽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³⁶⁾ 반면에 황현은 서양학문의 필요성을 東道西器的 차원에서 인정했으나 본인이 직접 서양학문을 수용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일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다.³⁷⁾ 1907년경 이기의 간곡한 호소와 충고에 힘입어 1908년부터 구례에서 사립 호양학교를 세워 신학문 수용을 통한 인재의 육성에 나섰던 것이다.

을 견지한 데서 비롯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34) 『海鶴遺書』, 『海鶴遺書序』,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1, 1쪽.

35) 『海鶴遺書』 권1, 『田制妄言』,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1, 10쪽.

36) 이기의 이와 같은 경향은 단순한 東道西器的 차원을 넘어서는 變法自強의 경지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가 중국의 변법개혁론자였던 양계초의 글을 열심히 읽고 이를 1908년 호남학보에 소개한 데서 보면 이와 같은 성향이 두드러진다. 『호남학보』 제1-10호 참고.

37) 김영봉, 앞의 논문, 2003, 14~23쪽에 의하면 황현은 이견창의 추천으로 1887년 주미공사로 부임하는 박정양의 수행원으로 추천되었으나 거절했고, 온건 개화와 관료인 신기선 등이 상경하여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해도 사양했다고 한다.

IV. 東學 認識

1. 全州和約 이전까지의 동학 인식³⁸⁾

이기와 황현은 동학에 대한 태도에서 다른 점을 보여준다. 이기의 경우 1894년 봄 전봉준에 의해 1차 무장봉기가 일어나던 시점에서는 동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듯했다. 그러나 그가 동학지도자 金開南에게 거부당한 이후부터 제2차 봉기가 단행되고 여러 차례의 패전 끝에 동학도가 패퇴하는 과정에 이르러서는, 동학에 대한 인식은 황현과 거의 접근하여, 양자 모두 동학을 비판, 배척하는 형태로 귀결된다.³⁹⁾

이기의 『해학유서』를 편집한 정인보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하였다.

왕실 외척들의 전횡이 날로 심하여 三南民들은 그들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였고, 갑오년(1894)에는 東匪가 일어났었다. 이때 공은 구례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그 곳에서 義兵을 인솔하고 漢城으로 들어가 정부를 전복하고 간신을 주살한 후 上[高宗]을 받들어 國憲을 一新하는 것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全奉準에게 달려가 그를 설득하였다. 전봉준은 동비의 괴수로 매우 호탕하였다. 그는 이때 공의 말을 받아들여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南原에 김개남이 있으니 공이 그 곳으로 가서 그와 합의를 보시오”라고 하였다. 공은 즉시 남원으로 갔다. 이때 개남은 그를 거절하여 만나 주지도 않고 공을 해치려고

38) 동학의 시기구분과 관련해서는 박맹수,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매천 황현과 역사서술』, 디자인호름, 2011 및 「전라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 근현대사연구』 51, 2009 등을 참고하였다. 필자는 본고의 주된 대상 인물인 이기의 경우 동학에 대한 부정적 체험을 바탕으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고, 황현의 동학에 대한 서술 변화가 약간의 긍정적 객관적 서술에서 부정적 서술로 변화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초창기 동학농민군의 질서정연한 모습과 후반기 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의 관군과 다름없는 무질서하고 약탈적인 부정적 모습을 대비하여 본고와 같이 나누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대체적인 경향일 뿐 모든 동학농민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39) 박맹수, 앞의 논문, 2009 참고.

하므로 공은 옷을 바꾸어 입고 도주하여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공은 그들과 무슨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동비들은 약탈을 하기 위해 구례로 들어왔다. 이때 공은 郡民 수백명을 규합하여 그들을 토벌하였다.⁴⁰⁾

이기는 1894년 봄에 전봉준의 起包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을 때 동학농민운동을 부패하고 타락한 조정의 간신들을 몰아내고 庶政을 쇄신할 維新的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전봉준은 선뜻 동의하면서도 자신과는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남쪽의 동학접주 김개남을 찾아가서 그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김개남이 이기를 극단적으로 증오하여 접근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생명을 해치려고 했다. 전봉준과 김개남은 이기에 대한 태도가 이와 같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중앙정계의 대원군과 일정한 연계를 갖고 있었으며, 체포되었을 때 자신들이 한 일은 모두 대원군의 지시에 따른 일이었다고 발뺌하였다.⁴¹⁾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이기는 구례로 도망쳤다. 그는 12월 3일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구례의 '의병맹주'로 칭해지기 시작했다. 다만 6월에 全州和約이 성립된 이후 전라감사 김학진이 동학군의 호남 각 고을 집강소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당수 고을의 수령과 吏胥들은 자신의 임지와 직책을 버리고 도망쳐서 일신의 안전을 도모했다. 그러자 지방관이 도망친 고을에서는 양반 사대부들 중심으로, 그들의 家僮과 서리 및 일부 백성들을 모아 民堡軍 내지 의병을 조직하여 동학도를 반대하고 전투를 벌여 그들을 패퇴시키기도 했다.⁴²⁾ 이기가 구례 의병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호남 각 고을 관리들이 임지를 버리고 은신하던 무렵인 1894년 6월 중순 이후

40) 『해학유서』, 『海鶴李公墓誌銘』,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1, 9쪽.

41) 동학 지도자 김개남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박찬승, 「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의 동향-남원지방 김개남 세력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5 참고.

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편,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7, 2010, 146~151쪽의 『兩湖右先鋒日記』, 1894년 12월 6일.

로 보인다.

한편 황현은 1893년 3월, 보은 집회에서부터 1894년 초, 동학도의 1차 봉기를 거쳐 집강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동학도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 비판의 인식은 고수하면서도, 동학도들의 잘한 점들은 사실 그대로 서술해주는 양면적 입장을 보여주었다.⁴³⁾ 황현에 눈에 비치는 동학도들은 관군과는 달리, 민간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자 노력하고, 살생과 약탈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는 절제된 군인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는 특히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군 지도자들이 신경을 쓴 부분이었다. 그러나 황현은 동학을 천주교의 말단을 모방한 이단으로 보았으며, 그 무리[동학도]에 대해서도 나라와 백성에 피해를 끼치는 존재로 보는 인식으로 초지일관했다. 따라서 그는 동학도에 대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도적이라는 뜻으로 ‘賊’이라고 지칭했으며, 그 호칭은 끝내 변함이 없었다.

적들은 비록 지방관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치욕을 주고 협박하였으니 사실상 죽이는 것이나 다름 없었고, 또 연달아 성을 함락하고 무기를 약탈하였으니 **도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감사 김문현과 초토사 홍계훈부터 그 아래 각 지방의 아전과 軍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들을 두려워하여 위축되었고, 주고받는 공문에 모두들 감히 ‘**도적**’이라 꼬집어 기록하지 못하고, 다만 ‘東徒[동학 교도]’, ‘彼黨’, ‘厥徒’, ‘彼類’라고만 지칭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각 고을의 보고도 한결같이 그 공문서를 본따서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다. 아! 명령을 받은 장수와 한 도를 보살피는 지방관이 그 기강과 기백이 이미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없으니, 어찌 적을 제압할 수 있으리오?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은 이를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聖人께서 어찌 우리를 속이시겠는가?⁴⁴⁾

43) 『吾下記聞』, 『首筆』; 김종익, 앞의 책, 1994, 79~80, 92, 97, 130~131, 227, 232쪽 참고.

44) 『吾下記聞』, 『首筆』; 김종익, 앞의 책, 1994, 86쪽.

황현은 이처럼 당시 조정에서 파견된 진압군 측이 일반적으로 쓰던 東徒, 彼黨 등의 다소 중립적인 용어를 거부하고, 철저한 적개심으로 동학도들을 ‘賊, 盜賊’이라고 지칭하면서 도적을 제거하듯이 강경하게 동학도를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학은 西學의 아류에 불과하며 그 이름과는 달리 실상 서학과 똑같은 흑세무민(惑世誣民)의 사설(邪說, 사악한 주장)이라고 보았다.

철종 말기에 이르러 장김(당시의 집권세도가 안동김씨들)은 더욱 그 학정을 더해갔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이를 원망하였다. 이때 경주에 사는 崔濟愚라는 사람이 스스로 “하느님이 재난을 내린다”고 하면서 문서를 만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부적과 주문을 유행케 하였다. 그 학문 역시 ‘天主’를 받드는 것인데도 西學과 구별하고자 ‘東學’이라고 고쳐 불렀다. … 그 무리들은 마치 참다운 도학인 듯 여겼지만 실상은 상스럽고 알팍한 천주학의 부스러기를 주워모은 것에 불과하였다.⁴⁵⁾

황현은 이처럼 동학을 처음부터 서학과 다름없는 흑세무민하는 이단사설로 규정했고, 결코 천주교와 다를 바 없는 비루한 부스러기로 취급하였다.

2. 執綱所 설치 이후의 동학 인식

이기는 구례 군민들에 의해서 의병의 맹주로 추대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황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각읍의 백성과 아전들이 다투어 일어나 적(=동학도)을 죽여 서울 병력에 호응하였다. 그러나 수령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각읍에서는 아전과 백성들은 말할 것 없이 대다수가 믿고 따르는 사람을 추대하여 통솔자로 삼았다. 구례는

45) 『吾下記聞』, 『首筆』; 김종익, 앞의 책, 1994, 60쪽.

3일날, 순천은 5일날, 광양은 6일날 등, 전라남도 10여개 읍에서 일시에 서로 호응 하였는데, 모두 民砲라고 하였다. 민포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치면 의병과 같은 것이다.⁴⁶⁾

이렇게 구례 군민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맹주로 삼은 일에 대해서는 기술 하였으나, 그 맹주가 이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황현은 일체 서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우선 최초에 이기가 전봉준을 찾아간 것부터 황현은 못마땅했던 것 같다. 그러나 황현은 이 사실도 그의 저서 어디에도 기술하지 않았다. 심지어 황현이 쓴 이기의 제문, 만사 어디에도 이기가 동학접주 전봉준과 김개남을 찾아간 사실 및 구례 의병의 맹주가 되어 동학도를 물리쳤다는 등의 언급은 일체 없었다. 황현의 입장에서 볼 때, 동학에 대한 이기의 호감에서 비롯된 최초 행적에 대한 기술이 없이, 나중에 이기가 동학도를 물리치는 구례의 맹주가 되었다는 사실만 기록하는 것도 그 자신의 양심과 直筆의 입장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는 구례의 의병 맹주가 되어 호남의 선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구례현 의병맹주 이기는 삼가 본도의 여러 읍 유생들에게 알린다. 사악한 주장 [邪說]과 폐악한 말을 말로 대항할 수 있는 자도 聖人の 무리이고, 亂臣賊子를 모두 잡아 죽이는 것은 반드시 士師의 직임만이 아니다. 이런 이치는 하늘에 있고 땅에서도 차이가 없다. … 처음에 부적을 태운 물로 병을 치료하여 張角, 道陵의 부류로 의심했으나 끝내는 난리를 일으켜서 갑자기 龐勛과 方臘의 일이 일어났다. … 螻蟻처럼 작은 벌레가 꿈틀거리다가 마침내 벌이나 전갈 같은 독을 피고 뱀과 돼지가 먹어버리듯이 하며, 大隊가 이름 있는 성을 점거하여 닭과 개가 편안하지 못하고 遊擊하는 기병이 민가와 사대부를 약탈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어찌 피가 날리고 고문하는 형벌을 허물하겠는가? 나라가 모두 집안의 적을 원수

46) 『吾下記聞』, 『首筆』; 김종익, 앞의 책, 1994, 295쪽.

로 여겨 이를 갖고 있다.⁴⁷⁾

이처럼 이 당시 이기는 동학을 처음에는 그저 민간의 미신과 같은 하찮은 부류로 보았으나 점차 흑세무민하는 邪說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⁴⁸⁾, 나라를 좀먹는 내부의 도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학도를 도적으로 보는 관점은 황현과 동일하다. 그가 나중에 동학도의 침입을 막는 의병의 맹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인식의 표방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당시 서울에서 경군을 몰고 동학군을 진압하러 온 순무영 선봉장 李斗璜(1858~1916)은 구례의병의 맹주 이기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가 지방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마지못해 석방해준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이기가 자신의 명령과는 달리 함부로 동학교도를 죽였다는 것 때문이었다.⁴⁹⁾ 그러나 이에 대해 황현은 “이두황이 사실은 이즈음에 동학도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을 석방해주었기 때문에 의병들이 이에 분노하여, 이두황이 오기 전에 동학도를 잡아서 처형했다”고 하여, 구례 맹주[이기]의 행동이 호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이기와 황현은 동학에 대한 인식에서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다. 이기는 동학농민운동의 초창기 위세와 보국안민의 기치에 공감했다. 그래서 전봉준을 찾아가 부정부패를 일삼는 조정의 간신들을 축출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김개남에게 거절당하고 목숨까지 위협 받고 난 뒤에 동학군을 멀리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동학농민군의 구례성 공격을 방어하는 의병장이 되었다. 즉 사상의 일대반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기가 그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에 황현은 처음부터 동학을 도적으

4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편,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7, 2010, 157~159쪽의 「兩湖右先錄日記」, 1894년 12월 초10일.

48) 사실상 이 부분은 이기가 자신의 동학에 대한 초창기 행적을 숨기는 서술로 보인다. 전봉준을 찾아가서 부패한 조정의 권신들을 축출하자던 논의를 완전히 은폐한 부분이다.

49) 각주 47과 같음.

로 보았고 당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역적 행위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기와 황현 두 사람은 비록 전후의 입장 변화 유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양자 모두 사대부 중심의 유교적 신분질서를 옹호한 공통점이 동학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진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기와 황현은 근대 이행기 호남의 유학자로 성장하여 함께 교유하면서 학문과 시사를 토론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된 배경은 그들이 비록 출생지가 달랐지만 ‘구례’라는 지역에서 함께 살게 되었던 공통적인 지역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개항기의 극심한 사회변동 속에서 개화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둘 다 공감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 모두 반계 유형원이나 다산 정약용 같은 중농주의 실학자들의 전제개혁에 공감하는 등 실학을 계승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온건한 개화정책에 동조하고 있었다. 황현은 당대 서울 일대에서 활약하던 개화파 인사들인 강위, 신헌 등과 개항 직후부터 교유하였고, 이기도 1890년대 이후 황현과 교유하면서, 황현의 서울 친구들을 비롯하여 조정의 관료들, 언론인들과도 차츰 교유관계를 넓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기와 황현의 개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화정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양자가 확연히 달랐다. 이기는 적극적으로 광무정권의 양전사업에 참여하고 보안회의 활동과도 연계되어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좌절시키는 데에 앞장섰으며, 을사늑약 이후에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자강회, 호남학회 등의 교육, 언론 활동과 매국노를 징벌하는 의열투쟁에도 적극 투신했으나, 황현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황현도 1902년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이기의 충고와 1905년 김택영의 중국 망명 활동 등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 국권회복의 중대

성을 절감하던 차에, 1907년경 다시 신교육운동에 참여하라는 이기의 요청이 있자, 마침내 1908년 호남학회가 내세우는 호남지역 신식학교 설립과 신교육운동에 나서게 되었으니, 구례지역의 사립 신식학교인 호양학교의 설립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기와 황현은 동학 인식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이기는 처음에 동학농민군에 동참하여 부패한 정치를 일신하고자 할 정도로 동학농민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였으나 전봉준과 김개남의 서로 다른 반응과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난 뒤, 오히려 동학군을 진압하는 구례 의병의 맹주가 되었다. 이에 비해 황현은 처음부터 동학을 도적이라고 본 인식을 끝내 유지했다. 그들의 이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될 즈음에 양자간의 차이는 없어졌다. 그들은 체포한 동학도를 도적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엄중하게 다스리자는 의견에 있어서 일치했다. 사대부 중심의 당대 신분질서를 옹호한 공통점 때문이었다. 이는 그들의 사상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기와 황현은 모두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다가, 결국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죽음으로써 항거, 즉 순절함으로써 당대 향촌사회의 대다수 소극적인 유림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을 근대 이행기 호남지역 유림의 학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⁵⁰⁾

투고일 : 2015. 9. 5 / 심사일 : 2015. 9. 6~22 / 심사완료일 : 2015. 9. 23

50) 이에 시사를 주는 연구로서, 김영봉의 학위논문(2003, 2014) 및 번역자료집 등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南湖詩社'를 결성했다고 하며, 황현의 제자들은 별도의 '梅泉詩派'를 형성했다고 한다(김정환의 2006년 박사논문 인용). 그러나 이기와 황현의 만남은 비록 시의 교류로 비롯되었지만, 현실인식에 있어서 상호 교감을 쌓아가고 토론을 통해서 향촌사회 對民施策의 안정을 추구해갔다는 공통점에서 단순한 '詩派'내지 '詩社'로는 표현하기에 부족한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모임을 하나의 학파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외에 토론모임에 참여한 이들의 인적구성파 인식의 경향, 토론과 사회참여의 내용, 이들을 잇는 제자 그룹의 면모와 사상의 계승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원전

1) 李沂

국사편찬위원회 편, 『海鶴遺書』, 韓國史料叢書 3, 탐구당, 1971.

『質齋藁』(天主六辨)

『答嶺南儒者李沂書』

『法人謹謝李碩士旅軒下』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월보』

호남학회, 『호남학보』

2) 黃玼

황현, 『梧下記聞』, 『首筆』

黃玼 著, 김종익 옮김,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黃玼 著, 국사편찬위원회 편, 『梅泉野錄』, 한국사료총서 1, 1955.

黃玼 著, 『黃玼全集』, 上·下(매천집, 매천속집, 매천시집, 매천야록), 아세아문화사, 1978.

黃玼 著, 『梅泉全集』 全5冊,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편, 한국인문과학원, 1984.

黃玼 著, 『梧下記聞』(首筆~3筆),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 1, 여강출판사, 1994.

黃玼 著, 임정기·박헌순·권경열 역, 『매천집』 1·2·3, 한국고전번역원, 2010.

黃玼 著, 李章熙 譯, 『梅泉野錄』, 양우당, 1988.

黃玼 著, 이장희 역, 『梅泉野錄』 上·中·下, 명문당, 2008.

黃玼 著, 金濬 譯, 『完譯 梅泉野錄』(附錄 漢文本), 교문사, 1994(2005).

黃玼 著, 심병탁 역, 『梅泉詩續集』, 매천황현선생기념사업회, 2010.

이병기·김영봉 共譯, 『(역주) 매천 황현 시집』 上, 中, 下. 보고서, 2007.

김영봉 譯, 『(역주) 황매천 시집』 後集, 보고서, 2010.

_____, 『(역주) 황매천 시집』 續集, 보고서, 2014.

3) 동학 인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편,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제1-12권, 2010.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위텔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낸 1895년도 보고서』, 『서울교구연보

(1) 1873~1903』, 1984.

黃玼 著, 이민수 역, 『東學亂 : 東匪紀略草藁』, 을유문화사, 1985.

2. 논저

1) 황현 및 이기와 관련된 인물 연구 일반

(1) 이기

- 金度亨, 「海鶴 李沂의 政治思想研究」, 『東方學誌』 31, 1982.
- 金庠基, 「李海鶴의 生涯와 思想에 대하여」, 『아세아학보』 1, 1965.
- 金容燮, 「光武年間の 量田事業에 關한 一研究」, 『亞細亞研究』 11-3, 1968.
- _____, 「광무연간의 量田·地契事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下, 일조각, 1968.
- _____, 「海鶴 李沂의 土地論과 量田論」, 『증보판 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下, 일조각, 1984.
- 羅鍾宇, 「海鶴 李沂의 救國運動과 그 思想」, 『원광사학』 2, 1982.
- 李康五, 「海鶴 李沂 先生의 生涯」, 『海鶴 李沂 先生』, 海鶴李沂先生救國運動追念碑 건립 위원회.
- 李英俠, 「海鶴 李沂考」, 『학술지』 14, 1972.
- 朴鍾赫, 「海鶴 李沂의 思想的 轉移의 過程(海學研究 其一)」, 『韓國漢文學研究』 12, 1989.
- _____, 「海鶴 李沂의 天主教 批判-프랑스 신부 로베르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下,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職紀念論叢, 창작과 비평사, 1990.
- _____, 『韓末 激變期 海鶴 李沂의 思想과 文學』, 아세아문화사, 1995.
- 田英培, 「海鶴 李沂의 教育思想」, 『國際大學 論文集』 제6집, 국제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8.
- 鄭景鉉, 「韓末 儒生의 知的 變身: 海鶴 李沂(1848~1909)의 경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陸士論文集』 23, 1982에 재수록).
- 정승교, 「이기(李沂)의 사상에서 ‘공(公)’의 의미」, 『역사와 현실』 29, 한국역사연구회, 1998.
-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편, 「李沂」, 『教育思想家評傳: 韓國篇』, 교육연구사, 1987.

(2) 황현

- 琴章泰·高光植, 「梅泉 黃玑」, 『續 儒學近百年』, 여강출판사, 1989.
- 길은식, 「梅泉 黃玑의 開化認識 研究」, 『靑藍史學』 3, 2000.
- 김영봉, 「黃玑 詩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_____, 「黃梅泉 詩文學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정환, 「梅泉詩派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항구, 「梅泉 黃玑의 對外認識과 그 變化」, 『사회과학연구』 4, 2003.
- _____, 「黃玑의 新學問 受容과 壺陽學校 設立」, 『문화사학』 21, 2004.
- 박걸순, 「매천 황현의 당대사(當代史) 인식을 둘러싼 논의」, 『매천 황현과 역사서술』, 디자인하

름, 2011.

이장희, 『梅泉 年譜』, 『매천야록(梅泉野錄)』 上, 명문당, 2008.

_____, 『黃玹의 生涯와 思想』, 『매천야록(梅泉野錄)』 下, 명문당, 2008.

하우봉, 『근대 여명기의 계몽적 역사가 매천 황현』, 『매천 황현과 역사서술』, 디자인흐름, 2011.

_____, 『黃玹의 歷史意識에 대한 研究』, 『全北史學』 6, 1982.

한철호, 『『매천야록』에 나타난 황현의 역사인식』, 『매천 황현과 역사서술』, 디자인흐름, 2011.

홍영기, 『황현』, 『한국사시민간좌』 41, 일조각, 2007.

_____, 『황현의 생애와 사상』, 『光陽市誌』 1, 2005.

_____, 『黃玹의 著作物 간행과 연구 현황』, 『남도문화연구』 19, 2010.

2) 동학 인식 관련 연구

김봉곤,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과 士族의 대응』, 『지리산권 동학농민혁명』, 도서출판선인, 2014.

김용섭, 『黃玹(1855~1910)의 農民戰爭 收拾策』, 『歷史와 人間的 對應 - 高柄翊先生回甲紀念史學論叢』, 고병익선생회갑기념사학논총 간행위원회, 1984.

김진소, 『동학과 민중의식의 성장』, 『천주교 전주교구사』 1, 빅벨, 1998.

김창수, 『『甲午平匪策』에 대하여 ; 梅泉 黃玹의 東學認識』, 『藍史鄭在覺博士古稀紀念 東洋學論叢』, 동양학논총 편찬위원회, 1984.

_____, 『매천 황현의 동학인식에 대하여』, 『新人間』 416, 1984.

_____, 『黃玹의 『東匪紀略』 草藁에 대하여 - 『梧下記聞』 乙未 4月以前 記事의 檢討』,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박맹수, 『東學農民戰爭의 地域性 研究 - 신원운동에서 1차봉기까지를 중심으로 -』,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동학과 동학농민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_____,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매천 황현과 역사서술』, 디자인흐름, 2011.

_____, 『전라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박명규, 『동학농민전쟁과 지방사 연구』,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5.

박찬승, 『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의 동향 -남원지방 김개남 세력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5.

신순철, 『開化期의 民衆宗教 認識』, 『원광사학』 4, 1986.

원재연, 『서세동점과 동학의 창도』, 『중원문화연구』 21, 2013.

이이화, 『黃玹의 『梧下記聞』에 대한 內容檢討 ;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기술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4, 1991.

임경숙, 『梅泉 黃玗의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인식』,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차남희·유지연, 『황현(1855~1910)의 동학에 대한 인식과 비판 : 『오하기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15, 2006.

황선희, 『동학·천도교사상에 관한 연구동향과 전망』, 『한국근대사의 재조명』, 국학자료원, 2003.

<Abstract>

The thought of current affairs and
the recognition of Donghak peasantry
movement in modern transitional times by the
confucianists of Jeon-Ra province(湖南儒林),
focusing on the case of Yi-Ki(李沂) and of
Hwang-Hyen(黃玪)

Won, Jae-yeon

This is the research article that is considered on the thought of current affairs and the recognition of Donghak peasantry movement in modern transitional times by the confucianists of Jeon-Ra province(湖南儒林), focusing on the case of Yi-Ki(李沂) and of Hwang-Hyen(黃玪). They are different from their birthplace. But when they immigrated from their native hometown to Gu-Re county, they were getting to make friends with each other and interact their thinking and knowledge. They all succeeded the physiocratism brought forward by Yu Hyeong-won and by Jeong Yak-yong, and so they supported the moderate enlightenment policy. Hwang-Hyen made acquaintance with the members of moderate enlightenment group who acted in and near the Capital city of Seoul from the following after the opening port era. Yi-Ki was brought

* Research professor at Research center of Korean classics, in Jeon-Ju university

into contact with officers of government and with journalist after making friends with Hwang-Hyen in 1890.

Yi-Ki and Hwang-Hyen were more or less different from participating in the current enlightenment policy. The one took part in national land survey made by the imperial government of Dae-Han and led the frustrating the imperial Japanese intention of getting the right of cultivating the waste land in Korea, fighting together Bo-An-Hoi(保安會). And after the enforced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concluded in 1905, he made his efforts to recover the national right through the movement of education and journalism participating in the circle of Dae-Han-Jakanghoi(大韓自強會) and of Ho-Nam-Hakhoi(湖南學會), besides of the righteous movement of punishing the 5 traitors of the enforced treaty. The other concentrated on the describing the national history with the patriotic and the righteous viewpoint and criticizing the corrupt politics, encouraging the Righteous Army, wheres he was passive in the taking part in the various national movement of that time. After that Hwang-Hyen became Keenly aware of the necessity of partaking the national movement for recovering the national right, by the repeated advice for participating the movement by his friend Yi-Ki in 1902 and in 1907. Eventually Hwang-Hyen did his participation of the new educational movement, by establishing the private school Ho-Yang-Hakkyo at Gu-Re in 1908.

Yi-Ki and Hwang-Hyen were emine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aspect of the recognition on the Donghak peasantry movement in the time of breaking out the movement. The one cosented to Bokukanmin(輔國安民) meaning that assist the nation and set at ease the people, the purpose of the movement, earnestly enough to paticipate it and to clean the corrupt government policy, but he changed his mind because of seeing the different action of the two leaders Jeon Bong-jun and Kim Kae-nam toward to his

suggestion, cleaning the corrupt government policy. and was afraid of killing him. And so he became the chief of righteous army in Gu-Re who conduct the army for depending the attack of Donghak peasantry. The other sticted to consistant his negative oppinion against the peasantry whom he considered as robber, while he kept his describing still objective. Therefore in the late 1894, when the movement was suppressed, Yi-Ki and Hwang-Hyen were accord to each other from their conservative viewpoint of the movement, they all supported to the patriarch order of social states focusing on the Scholar-official(士大夫).

Keywords : Yi-Ki(李沂), Hwang-Hyen(黃玆), physiocratism(重農主義), the enlightenment policy(開化政策), Donghak peasantry movement(東學農民運動), the confucianists of Jeon-Ra province(湖南儒林)